

한국 시조 세계화를 꿈꾸며...

2009 만해축전, 8월 11~15일 만해마을서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개혁정신과 문학사상을 기리는 '2009 만해축전'이 8월 11~15일 만해마을에서 거행된다.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와 강원도, 인제군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문인협회와 한국작가회의, 불교평론 등이 주관하는 이번 축전은 입재식을 시작으로 제13회 만해대상 시상식, 제7회 유심상 시상식, 학술심포지엄, 문예행사, 특별기획행사, 주민과 함께하는 축전 대중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만해 스님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축전 메인행사인 입재식과 만해대상 시상식은 12일 오후 5시 만해마을 남의침목 광장에서 열린다.

제13회 만해대상 수상자는 이란 인권변호사 시린 에바디가 평화부문에 선정됐으며, 붓다 넷 웹마스터 뱀나와로 스님이 포교부문, 이소선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고문인 실천부, 김용택 서울대 명예교수가 학술부문으로 각각 결정됐다. 문학부문은 로버트 허스 미국 버클리대 교수와 김종길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동 수상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유심상 특별상은 김재홍 문학평론가 △시 부문 유인진 △시조부문 백이운 △평론부문 박찬일씨로 선정됐다.

만해 스님의 철학과 문화 등을 재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은 그 어느해 보다 풍성하게 펼쳐진다. 시조관련 7건, 문학일반 7건, 불교 및 종교관련 5건 등 총 19건의 학술행사가 열린다.

특히 △하버드대 한국시조 페스티벌(5월 15~16일) △19세기 시기문화(6월 13~14일) △시조문학(6월 27일) △시조 형식과 운율의 미학(7월 18일) △현대시조 특성과 전망(8월 1~2일) △현대시조 창작방향(8월 8일) △동아시아 시가와 세계화시대 한국문학(8월 15일) 등 시조 관련 학술행사가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 이와 관련,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은 "만해 실천선양회는 그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형식인 시조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해 만해축전은 그 연장선상에서 국정교과서에서 마저 제외된 한국 시조의 중요성과 세계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학일반 심포지엄은 △한국문학(8월 10일) △시인협회(8월 12일) △현대시(8월 12일) △중국작가 초청 국제문학(8월 13일) △한국문학(8월 13일) △현대시(8월 14일) △문인협회(8월 15일) 등이 열리며, 불교 및 종교관련 심포지엄은 △종교와 사회(7월 8일) △도의국사와 가사산문(7월 11일) △선과 서양사상(8월 11일) △불교문학의 상상력(8월 12일) △불교평론 창간 10주년 기념 '불교와 서양의 대화'(9월 12일) 등이 축제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최된다.

다채로운 문예행사도 열린다. 국보순례 시낭송회(5월 23일~7월 25일)를 시작으로 제7회 '남



지난해 열린 만해축전 장면과 올해 만해대상 수상자들(왼쪽 위에서부터 로버트 허스, 김종길, 시린 에바디, 이소선, 뱀나와로, 김용택).

의 침묵 서예대전'(8월 12일)과 축전 시인학교(8월 11~13일), 만해 스님의 채근담 서예전(8월 11~18일), 만해음악예술제(8월 12일) 등이 만해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와 함께 공식일정 이외에도 다양한 특별 기획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돋군다.

8월 17~22일 '2009 국제환경 리더스 페스티벌'에서는 평화생명지킴이 협약식, 평화콘서트,



엄홍길 대장과 동행하는 설악산 등정, 백담사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있다. 또 12월 3~4일 만해마을에서 '세계 대학생 영어시조 짓기 대회'도 열린다. 시상식과 함께 데이비트 맥캔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특강, 서울대 전통음악연구소 초청공연, 초청시인 시낭송도 준비돼 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올 축전은 만해 스님의 자유·민족·진보·평화 사상을 기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선양하는 축제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033)462-2304

김성우 기자

시간	행 사	장 소	주 관
8월 11일	오후 2시 만해시인학교 입교식	만해학교	시와시학사
오후 2시 학술세미나-서양사상과 선	실라벌성 대강당	시와세계	
오후 4시 만해 스님의 채근담 서예전 개막식	한국미술관	초대작가 김재봉	
오후 6시 유심작품상 시상식	남의 침묵 광장	만해마을	
오후 7시 축전 전야제	남의 침묵 광장	만해마을	
8월 12일	오전 8시 인제군 노인게이트볼 대회	북면 게이트볼장	인제군게이트볼연합회
오전 10시 학술세미나-불교문학과 생태적 상상력	실라벌성 대강당	현대불교문인협회	
오후 12시 전국고교생백일장	수련원 강당	강원일보사	
오후 1시 학술세미나-국보의 원형 심상과 시적 상상력	시와 시학사	만해학교	
오후 3시 학술세미나-현대시의 기법과 실제	실라벌성 대강당	한국시인협회	
오후 4시 남의 침묵 서예대전 시상식	박물관 2층	강원도민일보사	
오후 5시 입재식 및 만해대상 시상식	남의 침묵 광장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오후 6시 30분 전국고교생백일장 시상식	남의 침묵 광장	강원일보사	
오후 7시 국보사랑 시 제전	실라벌성 대강당	한국시인협회	
오후 7시 만해음악예술제	남의 침묵 광장	만해예술원	
8월 13일	오전 10시 학술세미나-한중 문학의 오리엔탈리즘	실라벌성 대강당	창작인작가회
오후 1시 만해시인학교 수료식	만해학교	시와시학사	
오후 2시 학술세미나-한국 문학과 종교적 영성	실라벌성 대강당	시사평화인협회	

'삼국유사'의 모든 것 한 자리에

삼국유사 문화축전 8월 27일 개막... 다례재 등 행사 풍성

'삼국유사 문화축전'이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경북 군위 인각사(주지 도권)에서 8월 27일 개막된다.

축전은 27일 오전 10시 인각사 국사전에서 열리는 일연 스님 입적 720주기 추모 다례재를 겸한 영산회상 시연을 시작으로, 삼국유사 골든벨, 문화의 밤, 학술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인각사와 군위군 군위교육청이 9월 4일 오전 10시 군위 삼국유사 교육관에서 공동주최하는 골든벨은 <삼국유사> 내용에 관한 퀴즈대화로 진행된다. 대구경북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로 6명씩 선정해 시상하며, 행사 후에는 인각사와 회복댐, 제2석굴암 등을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산사음악회와 뮤지컬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지는 '삼국유사 문화의 밤'은 9월 29일 오후 6시30분 학소대 수변무대에서 열린다. 올해는 <삼국유사> '효선' 편에 수록된 '손순이 아이를 묻다'가 뮤지컬로 선



일연 스님 진영.

보인다.

11월 24일 열리는 '삼국유사-일연 학술대회'는 일연 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각사는 10월 31일까지 일연 스님의 사상과 <삼국유사> 내용 중 미발굴된 자료에 대한 논문을 공모한다. 논문주제는 △삼국유사 및 일연선사의 생애와 사상연구 △고려사와 고려불교사를 포함한 중세한국사 △역사학에 대한 연구 등이며, 공모자격은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전공자에 한한다. 우수연구 논문 7편을 선정해 각각 국무총리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의 상과 상금을 지급한다.

인각사 주지 도권 스님은 "민족자주사학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가이자 문화가였으며, 팔만대장경 재조를 이끌었던 일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지자체와 함께 재조명하는 문화행사를 마련했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054)383-1161

김성우 기자

눈과 입, 마음으로 즐기고 느끼자

옥천포도축제 제다체험 큰 호응

옥천포도축제에 연꽃 및 수생작물 체험전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옥천군이 옥천농심테마공원과 옥천휴게소 등 일대에서 7월 15~19일 4박 5일간 개최한 옥천포도축제에 옥천전통문화연구회 안미자 회장과 회원 6명이 출품한 '명품' 식품 터널과 연꽃차 시음, 제다 체험이 큰 호응을 얻었다.

옥천 전통문화연구회 안미자 회장과 강경미 지도사범 등 회원 6명은 '명품' 식품터널(수세미, 조롱박, 머루, 색동호박, 뽕이)에서 연꽃차 시음 및 제다체험, 연 잎차 튀김 체험, 천연염색제품(스카프)을 직접 체험하도록 행사를 마련했다.



옥천포도축제에서 연꽃차 시음 등을 진행한 옥천 전통문화회.

강경미 지도사범은 "잠깐 스치는 구경이 아니라 눈과 입과 마음으로 느끼고 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보다 체계화된 체험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심테마공원 연꽃축제 행사장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043)733-5959

혜철 충청지사장

청주 무심천서 유등문화제를

청주청원불교연 9월 4일 개최

청주청원불교연(회장 광해, 금불사 주지)은 7월 16일 청주 대성사(주지 학승)에서 정기 월례회의를 갖고, 오는 9월 4일 '청주 무심천 유등문화제'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청주청원불교연(회장)은 "청주가 직지의 본고장으로, 불교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교행사가 미비했다"며 "2005년 유네스코 직지사 사상 등을 살려 '직지찾기 유등문화제'로 개최해, 5000여 명이 이상이 동참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심천 유등문화제는 청주유등공묘전과 전통 불교의식이 연이어 열리는 청주시 최대 축제로 기획된다. 청주유등공묘전은 충북파라미타 청소년협회에서 주관해 9월 4일 무심천 툴러스케이트장 주변에서 청주유등경연대회와 전시회, 유등피우기 순으로 열린다. 이어 권공 및 축원 등 전통불교의식과 기념법회, BBS 인기가수 축하공연 등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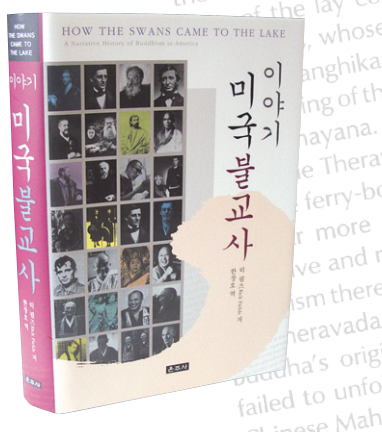
혜철 충청지사장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미국불교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역사와 그 현장!

전 세계 모든 불교가 공존하는 미국불교의 놀랍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

- 미국에서 불교는 어떻게 전파되고 진행되었는가?
- 미국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애쓴 주요 포교사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하였나?
- 미국인으로 불제자가 되어 활약한 사람들은?
- 미국 내의 일본, 티베트, 중국, 한국, 베트남 불교도의 활동 및 제보는?
- 미국불교의 특색은 무엇인가?
- 미국인에게 불교는 무엇이며, 미국불교의 미래는?
- 유럽인들과 불교는 어떻게 만났는가?
- 미국불교가 한국불교에 던지는 교훈은?

릭 필즈 저, 한창호 역/
신국판양장/672쪽/30,000원



이야기 미국

한국의 불교문화가 한 손에!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다양한 불교문화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

한국불교문화사전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문화 안내서

우리나라 국민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해 짧으면서도 평이한 설명을 하여, 일반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하는 것을 돕고, 불교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불교의 역사, 인물, 전통, 사찰, 건축, 회화, 조각, 공예, 경론, 의식, 수행생활, 불교용어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14명의 해당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700여 개의 표제어와 150여 컷의 사진으로 꾸민 한국 최초의 불교문화사전이다. 부록에는 대표적 불교문화재, 즉 불상, 보살상, 사천왕상, 전각, 탑, 범종, 석등, 부도, 당간 등에 대한 도해를 수록하였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편/국판변형양장/508쪽/25,000원